SEMINAR 6

PROPHECIES
CONCERNING
THE JEWS
AND ISRAEL (2)

유대와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 (2)

www.korbible.net

세미나 6: 유대와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 (2)

1. 개요:

세계 역사를 통해 보면 많은 국가들이 생성되고 멸망한다. 그 나라들 중 몇이 성서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한 국가가 성서 예언에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다른모든 나라를 능가한다. 그 나라는 이스라엘이다.

지난 주 세미나에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즉 그에게서 "큰 국가"가 나올 것이라는 약속 (창 12:2)은 이스라엘이 성서에서 중요한 한가지 이유이다. 또한, 예수 자신이 유대인이었고 그러므로 이 나라에서 "세상의 구원자"가 나온 것이다.

한가지 주요점은 유대국가는 어쩔수 없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인이 된다. 이 국민들의 운명과 운은 성서를 읽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심과 그의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이다. 이스라엘에 관한 성서의 예언은 현재까지도 많은 유대사람들에게 미지로 남아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관한 그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 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앎이라 저희가 <u>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u> 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살전 5:2-3)

SEMINAR 6: PROPHECIES CONCERNING THE JEWS AND ISRAEL (2)

1. INTRODUCTION:

Throughout the history of the world, many nations have come and gone - several of these are spoken about in the Bible. However, there is one nation whose part in Bible Prophecy far supersedes that of all other nations in the world - that nation is <u>Israel</u>.

Last week's seminar highlighted that the Jewish peopl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plan and purpose of God. For example, the promise to Abraham that from him would become "a great nation" (Gen 12:2) was one reason why Israel became such an important feature of the Bible. Also, Jesus himself was a Jew and so from this nation came the "Saviour of the World".

An important point to make is that the Jewish nation is an "unwilling" witness to God's existence. That is, the fate and fortune of these people is evidence for us who read the Bible that God exists and His word is true. Many of the Bible's predictions concerning Israel still remain unknown to the many of the Jewish people.



Unknown to many, God is still working his plan and purpose with Israel - even today!

"For you yourselves know perfectly that the day of the Lord so comes as a thief in the night. For when they say, "Peace and safet y!" then sudden destruction comes upon them..." (1 Thess 5:2-3)

2. <u>유대인이 흩어짐</u>:

몇천년 전 모세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였다. 그는 죽음 직전 그들에게 내릴 축복과 저주에 대해 포고하였다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을 보라). 저주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땅에서 쫓겨나 세계 각국으로 흩어질 것에 대한 선언도 포함되어 있었다.

질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불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겠는가? (신명기 28:64를 보라)

역사적으로 두 시점에서 유대인들은 성서에 예언된 대로 세계 각국으로 흩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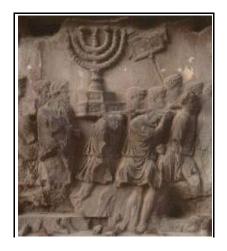
•

586BC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고 유다 국가는 바벨론의 느부 갓네살 왕에 의해 포로로 잡혀, 갔다. 포로 생활은 선지자 예레미아를 통해 예언된 대로 70년간 계속 되었다 (예레미야 25:11을 보라). 많은 유대인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 다시 국가를 설립하려고 하였다. 이는 작은 규모의 시도였고 그들이 그 후로 계속 다른

나라의 법 아래 통치되었으므로 그들은 자신 들의 나라를 얻지 못하였다.

•

70AD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법에 대항했고 그 대가로 로마 군대에게 처참히 짓밟혔다. 예루살렘 성은 멸망당하였고, 유대인들은 열국으로 흩어지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로 미리 경고하셨다. "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눅 21:24)



예루살렘에 대한 로마의 승리를 기념 한 티투스의 기념비

2. THE SCATTERING OF THE JEWS:

Thousands of years ago, a man named Moses delivered the people of Israel from Egypt and took them into the "Promised Land". Just prior to his death, he proclaimed to them a list of blessings and cursings (see Leviticus Ch.26 and Deuteronomy Ch.28). Included in the cursings was a declaration that the Israelites would be driven away from their homeland and scattered around

Question: What would God do to the Israelites if they disobeyed him? (See Deut 28:64)

The scattering of the Jews as predicted in the Bible happened at two points in history:

- In 586BC, the city of Jerusalem was destroyed, and the nation of Judah was carried captive by King Nebuchadnezzar into Babylon. This captivity lasted for 70 years as predicted by the prophet Jeremiah (see Jer 25:11). Many of the Jews then returned to the land in an attempt to re-establish their nation. This was done to a small scale, however their kingdom was not returned to them as they were generally under foreign rule from that time on.
- In 70AD, the Jews revolted against Roman rule and were in turn defeated severely by the Roman armies. The city of Jerusalem was destroyed and the Jews were scattered into all nations. Jesus had previously warned, " And they will fall by the edge of the sword, and be led away captive into all nations. . . . " (Luke 21:24)



T
he Arch of Titus commemorating
the Roman victory over Jerusal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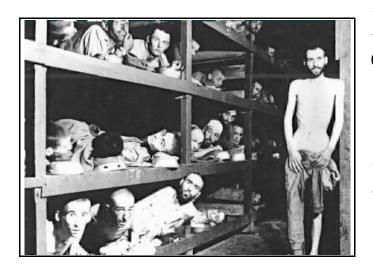
3. 대학살:

70AD에 있었던 유다의 멸망 이후 유대 민족은 유럽과 러시아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박해를 받았다. 약 1900년간 유대민족은 조국 없이 이곳 저곳을 방황해야 했다. 역사는 유대 사회 전체의 고통과 학살을 기록하고 있다.

어떠한 시점에서 (14 세기), 교황권은 "흑사병"의 원인을 유대인으로 몰아 유대인의 대량 학살을 일으키기도 했다. 가장 최근이기도 하면

서 가장 비참한 박해는 "유대인 대학살"로 알려져 있다.





대학살은 육백만 가량의 유대인이 처참 히 학살된 사건에 붙여진 이름이다. 193 0년대의 반유대주의의 발생은 유대인을 집결시켜 나치정권 아래 고통받게 하여 유대민족 전체를 몰살시키려 한 아돌프 히틀러의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주었다. 많은 유대인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박해는 몇천년 전에 성서에 이미 예 고된 것이었다.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대적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으로 약하게 하리니 ... 너희가 태적을 당할 힘이 없을 것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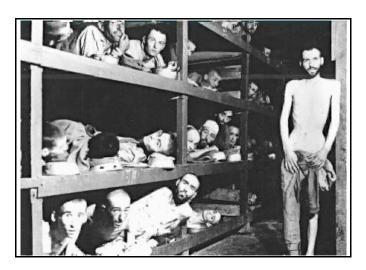
"... 너희가 열방 중에서 망하리니 <u>너희 대적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u> 너희 남은 자가 너희 대적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인하여 쇠잔하며 그 열조의 죄로 인하여 그 열조 같이 쇠잔하리라." (레위기 26:27,33-39)

3. THE HOLOCAUST:

Since the destruction of Judah in 70AD, the Jewish people have been severely persecuted in other lands - especially in Europe and Russia. Without a homeland for nearly 1900 years, the Jews were driven from place to place. History records entire Jewish communities being tortured and massacred.



At one stage (in the 14th century), the Papacy blamed the Jews for causing the "Black Death" plague and in turn great slaughters of the Jews occurred. The most recent and perhaps most tragic of all these persecutions was known as "The Holocaust".



The Holocaust is the name given to the cruel slaughter of some six million Jews. A rise in Anti-Semitism in the 1930s led to the rise of Adolph Hitler who ordered the extermination of the entire Jewish race, forcing them into concentration camps where they suffered under the hand of the Nazi regime. Unknown to many Jews however, this persecution was pre-recorded in their holy Scriptures several thousand years before.

" if you do not obey Me, but walk contrary to Me . . . I will scatter you among the nations and draw out a sword after you . . . and as for those of you who are left, I will send faintness into their hearts in the lands of their enemies . . . and you shall have no power to stand before your enemies. "

"... You shall perish among the nations, and the land of your enemies shall eat you up. And those of you who are left shall waste away in their iniquity in your enemies' lands; also in their fathers' iniquities, which are with them, they shall waste away. " (Leviticus 26:27,33-39)

이스라엘의 재결합: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성서는 유대인들이 각국으로 흩어짐과 박해받는 것에 대한 예언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이, 성서는 유대인이 팔레스타인 땅을 회복할 것에 대한 예언도 정확히 기록하고 있다.

유대인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것에 대한 다음의 예언을 잘 살펴보자:

-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이킬 때가 이르리니 내가 그들을 그 열조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준 <u>땅으로 돌아오게</u> 할 것이라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 . "(렘 30:3)
- " 보라 내가 그들을 <u>북편 땅에서 인도하며 (즉: 유럽),</u>
 <u>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니 . . . " (렘 31:8)</u>
-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렘 31:10)
 - "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열방 가운데서 모아 내고 <u>이스라엘 땅으로</u>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젤 11:17)



예언의 성취:

1900년간 조국 없이 지낸 유대인들의 생활 후에 이스라엘 국가는 1948년 5월 14일에 세워졌다. 그 후로부터 이스라엘 국가는 주변의 적대적인 아랍국가들 사이에서 생존하기 위해 싸웠다. 이스라엘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나라 중 하나로 손꼽힌다.

위의 지도: 현재 이스라엘 국가 - 성서 예언의 직접적인 성취!

4. THE REGATHERING OF ISRAEL:

As can be seen, the Bible was precise about prophecies concerning the scattering and persecution of Jewish people in other lands. Equally, the Bible is precise about predicting the restoration of the land of Palestine to the Jews.

Consider the following prophecies about the return of the Jews to the land of Israel:

- "For behold, the days are coming,' says the LORD, 'that I will bring back from captivity My people Israel and Judah,' says the LORD. 'And I will cause them to <u>return to the land</u> that I gave to their fathers (ie: Abraham, Isaac and Jacob), and they shall possess it. . . " (Jer 30:3)
- " Behold, I will bring them from the north country (ie: Europe), And gather them from the ends of the earth... " (Jer 31:8)
- " He who scattered Israel <u>will gather him</u> . . . " (Jer 31:10)
- " Thus says the Lord GOD: "I will <u>gather you</u> from the peoples, assemble you from the countries where you have been scattered, and I will give you the land of Israel." (Eze 1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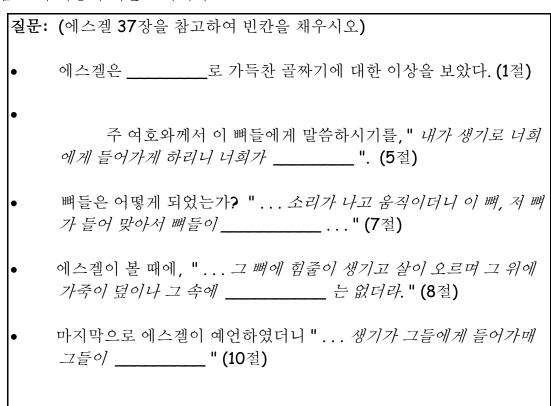
Fulfillment of the Prophecy:

After nearly 1900 years of the Jew being without a homeland, the state of Israel was formed on May 14, 1948. Since then the nation has fought against all odds to survive amongst its hostile Arab neighbours. It is now one of the wealthiest and most powerful nations in the world.

Above: The Nation of Israel today - A direct fulfillment of Bible Prophecy!

5. "마른 뼈들의 골짜기"에 대한 이상 (에스겔 **37**장):

이스라엘의 부활에 대한 다른 예언은 **2500**년 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예언되었다. 에스겔서 **37**장에 나온 이 이상은 "마른 뼈들의 골짜기"라고도 불린다. 다음은 이 이상에 대한 요약이다:



이상의 의미: 모든 의미는 성서와 구절의 문맥상으로 설명된다.

- 마른 뼈는 흩어진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겔 37:11)
- 뼈들이 합쳐지는 것은 유대인이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옴을 의미한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겔 37:12)
- 하나님이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참하나님을 깨닫게 됨을 의미한다 (아직은 미래의 일이다) " 내가 또 내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 . .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이룬줄을 너희가 알리라." (겔 37:14)

5. THE "VALLEY OF DRY BONES" VISION (Ezekiel ch. 37):

Another prophecy concerning the resurrection of the nation of Israel was given to the prophet Ezekiel about 2500 years ago. The vision given in chapter 37 of his book is often referred to as "The valley of dry bones". Here is a summary of the vision:

Question: (Fill in the missing words from Ezekiel Ch.37)	
•	Ezekiel saw a vision of a valley which was full of (v1)
•	God says to the bones, " Surely I will cause breath to enter into you, and you shall ". (v5)
•	What happened to the bones? "there was a noise, and suddenly a rattling; and the bones came" (v7)
•	As Ezekiel was watching, " the sinews and the flesh came upon them, and the skin covered them over; but there was no in them." (v8)
•	Finally, Ezekiel prophesied and " breath came into them, and they " (v10)

The Meaning of the vision: Let the Bible and context of this passage do all the explai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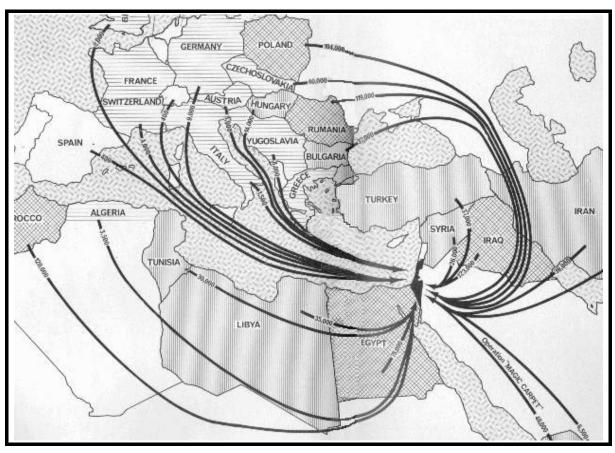
- The dry bones are a symbol of scattered Israel " . . . these bones are the whole <u>house of Israel</u>. They indeed say, 'Our bones are dry, our hope is lost, and we ourselves are cut off!" (Eze 37:11)
- The bones coming together symbolise the regathering of the Jews to the land - " I will open your graves and cause you to come up from your graves, and <u>bring you into the land of Israel</u>." (Eze 37:12)
 - The breath of God entering them represents the nation of I srael recognising their true God (yet future) " I will put $\underline{\text{My Spirit}}$ in you, and you shall live . . . Then $\underline{\text{you shall know}}$ that I, the LORD, have spoken it and performed it. " (Eze 37:14)

"마른 뼈들의 골짜기"에 대한 이상 (계속)

명백한 해석: 에스겔이 37장 끝부분에서 유대 민족이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 한 것이 가장 명백한 해석일 것이다:

"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화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바 열국에서 취하며 그 사면에서 모아서 <u>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u> 그 땅 <u>이</u> <u>스라엘 모든 산에서</u>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 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겔 37:21-22)

밑의 도표는 이 예언의 부분의 성취에 대해 나타내주고 있다. 세상 역사상 이런 대규모의 유대민족이 중동 지역의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온 일은 없었다.



이스라엘로 돌아온 유대인들 (1946-19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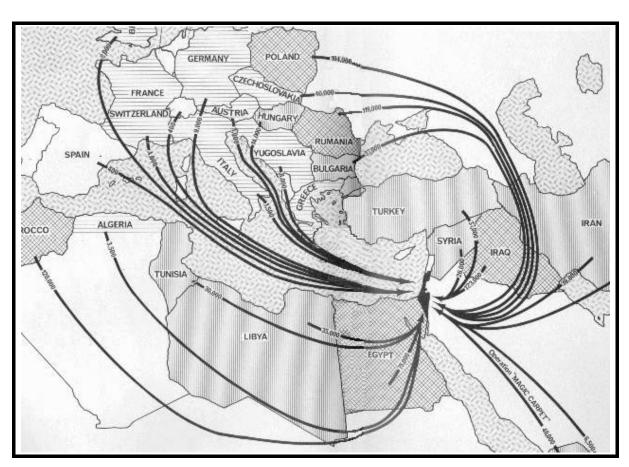
이 예언은 다음으로 계속 이어진다, "...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겔 37:22). 이 마지막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 즉: "유대인의 왕". (마가복음 15:26을 보라)

THE "VALLEY OF DRY BONES" VISION (cont.)

A clear interpretation: Perhaps the clearest indication that Ezekiel is referring to the return of the Jewish people to their land is in the last part of chapter 37:

"Surely I will take the children of Israel from among the nations, wherever they have gone, and will gather them from every side and bring them into their own land; and I will make them one nation in the land, on the mountains of Israel . . . " (Eze 37:21-22)

The diagram below demonstrates the fulfilment of this part of the prophecy. Never before in the history of the world have there been so many Jews return to their homeland in the Middle East.



The Return of the Jews to Israel (1946-1964)

The prophecy continues with the words, "... and one king shall be king ov er them all..." (Eze 37:22). These last words are yet to be fulfilled with the return of Jesus Christ himself - ie: The "King of the Jews". (see Mark 15:26)

6. <u>이스라엘: 현대의 기적</u>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u>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겔 36:22)</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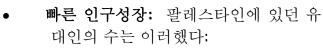
위의 말은 하나님께서 한가지 주 목적, 즉 그의 거룩한 이름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모을 것임을 나타낸다. 이 목적은, 사람들이 성서에서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에 대해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기 전부터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성서의 저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오늘날 까지도 활동적으로 기적을 이루시고 계신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스라엘 국가가 어떻게 현대의 기적이라는 것인지 생각해 보자:

- 다른 국가에서의 생존: 유대인들은 1900여년간 조국 없이 살았다. 어떤 다른 나라도 그 긴 시간 같은 상황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진멸한다 할찌라도 <u>너는 진멸하지 아니하리라</u>." (렘 30:11)
- 수많은 박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 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램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신명기 28:37) 유대인이 어디에 가든 그들은 거주하는 나라에서 박해를 받

았다.

 국가의 재설립: 유대인들은 약 140개 국에서 모여 1948년 5월 14일에 이스 라엘 국가를 다시 설립하였다.



- 1856: 500 유대인

- 1948: 657,000 유대인

- 1998: 4,700,000 유대인

- 2006: 6,000,000 유대인

6. ISRAEL: A MODERN-DAY MIRACLE

" I do not do this for your sake, O house of Israel, but for My holy name's sake, which you have profaned among the nations wherever you went." (Eze 36:22)

The above words indicate that God has regathered the people of Israel for one main reason - to magnify His holy name! That is, people will read the prophecies about Israel in the Bible and actually see God's words being fulfilled before their very eyes. This indicates that the Bible's author is a living God and is still actively working miracles - even today!

Consider how the nation of Israel is a modern-day miracle:

- Survival in other countries: The Jews were without a homeland for nearly 1900 years. No other nation has survived that long in that situation. God said concerning Israel " Though I make a full end of all nations where I have scattered you, Yet <u>I will not make a complete end of you</u>." (Jer 30:11)
- A Persecuted people: God said, " And you shall become an astonishment, a proverb, and a byword among all nations where the LORD will drive you." (Deut 28:37)

Wherever the Jews went, they were persecuted by the nations they settled in.

 A Nation again: The Jews had gathered from over 140 countries around the world to form the state of Israel in May 14, 1948.



Rapid population growth: The number of Jews in the land of

Palestine were: - 1856: 500 Jews

1948: 657,000 Jews1998: 4,700,000 Jews2006: 6,000,000 Jews

이스라엘: 현대의 기적 (계속)

•

땅의 재생: 최근 **50**년간, 팔레스타인의 땅 많은 부분이 황폐한 땅에서 매우 비옥한 땅으로 가꾸어졌다.

• 적대적인 이웃나라에 대항하여 생존: 이스라엘은 열악한 상황에도 불 구하고 기적적으로 다음의 **4**개의 주요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1948: 독립전쟁1956: 수에즈 위기1967: 6일 전쟁

- 1973: 제 4차 중동전쟁 (용 키퍼 전쟁)



이 전쟁들을 통해 유대국가가 수많은 공격에서 생존한 것 뿐 아니라 이를 통해 기적적으로 영토를 늘려간 것음을 볼 수 있다. 한가지 예로 1967년 6일 전쟁에서 그들은 서안 지구와 골란 고 원을 얻었다. 이 전쟁은 이집트와 시리 아, 이라크의 도움을 받은 요단이 이스 라엘 국가를 진멸하기 위한 것이었다. 예루살렘 고대도시도 이 시기에 재점령 되었다.

- **번창하는 국가:** 이스라엘은 세계적으로 가장 발달 된 국가 **12**권 안에 든다. 또한 이스라엘은 미국 다음으로 하이테크 기술이 뛰어나고 매우 부유한 나라이기도 하다. 다음 통계를 살펴보자:
 - 이스라엘 수출액은 불과 몇 년 만에 급격히 증가하였다. 즉:
 - 1975 수출액 = 18억 달러 (미국 달러)
 - 1997 수출액 = 207 억 달러 (하이테크로만 수출액이 62 억 달러를 육박함!)
 - 2006 수출액 = 626 억 달러

ISRAEL: A MODERN-DAY MIRACLE (Cont.)

- Regeneration of the Land: In the last 50 years, many parts of the land of Palestine have been transformed from a wasteland into very fertile countryside.
- Survival against hostile neighbours: Israel has miraculously survived 4 major wars against incredible odds. These conflicts were:
 - 1948: The War of independence
 - 1956: The Suez Crisis
 - 1967: The "Six Day" War
 - 1973: The Yom Kippur W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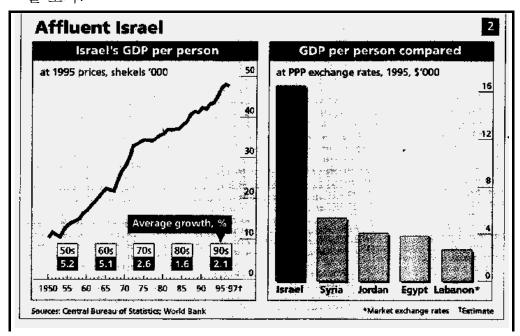


These wars not only saw the Jewish nation survive massive attacks but miraculously gain more territory. An example of this was the acquisition of the "West Bank" and Golan heights during the "Six Day War" in 1967. This was at a time when Egypt, Syria and Jordan (with the help of Iraq) were aiming to totally destroy the nation of Israel. The old city of Jerusalem was also re-captured at this time.

- A prosperous nation: Israel is one of the world's 12 most highly developed countries. It is second in the world (next to the USA) in High-tech industries. It is also an extremely wealthy country. Consider these statistics:
 - Israel's exports have increased dramatically in only a few years. ie:
 - 1975 exports = US\$ 1.8billion
 - 1997 exports = US\$ 20.7billion. (6.2billion from Hightech exports alone!)
 - 2006 exports = US\$ 62.6 billion

이스라엘: 현대의 기적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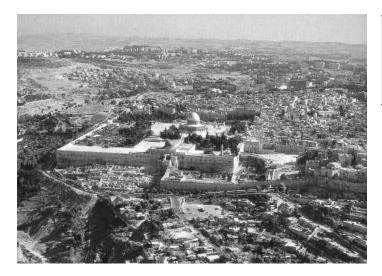
1998년 이스라엘 국내 총 생산은 인구 당 \$17,000 였고 2006년까지 급격히 늘 어 \$30,000까지 치솟았다. 1998년 주변 아랍 국가들의 인구 당 평균 생산량은 약 \$3,500 였고 2006년까지 약 \$5,000 까지 밖에 늘지 않았다. 다음 그래프 를 보자:



"The Economist"의 기사 (1998년 4월 25일자)

이스라엘의 미래: **7**.

성서에는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많은 기록이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서에 서는 이스라엘 국가, 특별히 예루살렘이 세계 통치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명백히 말하 고 있다. 예레미아의 구절을 생각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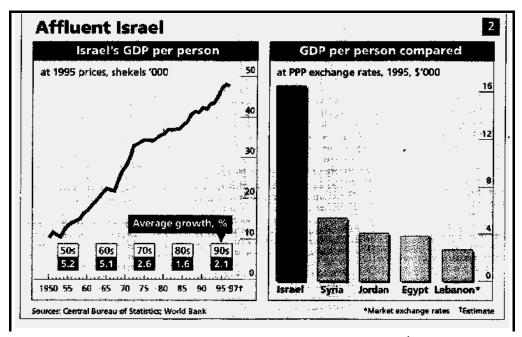


"그 때에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 라 일컬음이 되며 열방이 그리로 모 이리니..." (렘 3:17)

이스라엘 국가의 미래와 전 세계에 끼칠 영향에 대한 자세한 것은 다음 두 세미나의 주제로 다루어 질 것이 다.

ISRAEL: A MODERN-DAY MIRACLE (Cont.)

- Israel's GDP (Gross Domestic Product) in 1998 was \$17,000 per person, and this increased dramatically to \$30,000 in 2006. Average of neighbouring Arab countries in 1998 was approx \$3,500 per person, and this only rose to approx \$5,000 by 2006. See graph below:



Article from "The Economist" (25/4/98)

7. THE FUTURE OF ISRAEL:

The Bible speaks of many things concerning the future of this nation. . However, most importantly, the Bible clearly says that the land of Israel, and in particular Jerusalem, will become the centre of world rule. Consider this passage in Jeremiah:



"At that time <u>Jerusalem shall be</u>
<u>called The Throne of the LORD</u>,
and all the nations shall be
gathered to it . . . "

(Jer 3:17)

The details about the future of this nation, and its effect on the entire world will be the subject of the next two seminars.